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보고회

문화산업이 발전하려면 문화적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광주를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문화도시가 될 것

이번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을 단순한 지역방문용 선물 차원으로 이해하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은 나의 꿈이고 여러분의 꿈입니다.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 말합니다. 경제적으로 따져 봐도 문화산업분야가 엄청난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선 산업의 시장규모가 460억 달러인데 애니메이션은 705억 달러입니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은 0.4%에 불과합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마시마로, 둘리 등 캐릭터시장의 규모는 1,220억 달러인데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욕심나는 시장이다.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 시장을 우리가 먹어버립니다.

문화산업이 발전하려면 문화적 토대가 있어야 합니다. 도시 전체가 문화적 분위기에 젖어야 합니다. 그런 환경이 있어야 상상력, 창조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광주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입니다.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을 찾기 전에 기업이 그곳에 가 있습니다. 광주에 문화도시가 형성돼서 활동이 활성화 되면 기업

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올 것입니다. 광주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문화 도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남 일원에 문화와 산업이 골고루 퍼져서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문화부 장관은 내실을 다지자며 문화수도보다는 문화중심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름을 붙이는 것은 내 소관입니다. 문화수도로 합시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성과를 내도록 합시다. 문화장관은 지원자가 되고 광주·전남의 행정지도자와 문화예술인들이 추진해나가는 시스템을 갖춥시다.

사업적 측면에서 육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경쟁입니다. 성공 가능성을 가지고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확고한 원칙입니다. 평가에서 성공하도록 여러분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광주·전남이 그동안의 발전 과정에서 소외되고 낙후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점은 배려돼야 합니다. 평가기준에서도 이점은 고려되도록 할 것입니다.

5년 임기가 짧은 시간이지만 계획 세워서 시동 걸고 출발시키기에는 충분합니다. 나는 광주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